

시초

# 만복이 꽃피는 땅에서 부르는 노래

김영일

## 동해의 물결이 노래합니다

동해의 물결이 노래합니다  
우리 조국의 북변  
중평땅의 온실바다 너무도 회한하여  
낮에도 밤에도 넘실넘실  
앞다투어 파도가 물결쳐옵니다

동해의 기슭엔 명소도 많아  
칠보산과 집삼, 엄분진...  
어딜 가나 절승경계가긴만  
오늘은 수수천년 불수 없었던 땅  
의 바다  
황홀하여 파도가 춤을 추는것입니까

동해의 물결이 노래합니다  
우리 조국의 북변  
중평땅의 온실바다  
우에 사시절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져  
땅위에 생긴 바다가 부럽습니다  
그우로 끝없이 달려가고싶어  
파도도 춤을 추며 물꽃보라를 뿌려  
줍니다

축배 축배를 들고있네  
복받은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레일을  
위해

사람들이 터치는 즐거운 폭소에  
신부는 그만 부끄러워 머리숙이는데  
정색하여 신랑이 하는 말  
이제 다 원수님 주신 복이라네

그래그래 신랑의 말이 옳아  
남새온실농장 양묘장 새 집모두가  
우리 원수님 안겨주신 복이지  
우리모두 받아안은 만복이지  
아, 달도 부러워 못 떠나는 중평의  
밤이여!

그들이 썩썩하게 노래부르며 오던 길로  
오늘은 도시의 꽃같은 처녀들 오누나  
사랑의 바다에 흰 갈매기처럼 날아드  
누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농장에 오는 반  
가운이들  
아이들은 환성을 울리고  
농장원들 꽃목걸이 꽃송이 안겨주  
는데  
이것 봐라 양묘장의 총각들 텀치도

궁궐같은 새 집이랑  
엮어져도 떡합지에 엮어져소

그들이 썩썩하게 노래부르며 오던 길로  
오늘은 도시의 꽃같은 처녀들 오누나  
사랑의 바다에 흰 갈매기처럼 날아드  
누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농장에 오는 반  
가운이들  
아이들은 환성을 울리고  
농장원들 꽃목걸이 꽃송이 안겨주  
는데  
이것 봐라 양묘장의 총각들 텀치도



없이 벌써부터 꽃은 나비처럼 기웃거리네  
보금자리 펴 인민들 모습 그려보시며  
환하게 지으시던 어버이의  
미소여

종이나 좋아  
도시의 처녀교원 처녀의사  
부부는 꿈을 안고 찾아오는 중평땅  
청춘의 희망과 리상의 노를 마음껏  
저어가거라  
아, 이 땅의 레일은 얼마나 밝은가

오실 때는 서둘러 오시었던만  
가실 때는 왜 그리도 쉬이 떠나지  
못하셨던가  
다시 오래도록 돌의자에 앉으시어  
불받은 창가 바라보신 원수님  
그이 마음속엔 들려왔어라 인민의  
웃음소리

푸른 남새 붉은 열매를 정리 쓸어  
보며  
노래부르듯 누구나 하는 말  
-우리 중평온실남새야!  
남새가 귀하던 땅에 남새풍년  
사시절 푸르른 계절을 노래하는 땅

중평의 인민들 금방석에 앉히게 된것이  
그처럼 기쁘시어 환히 웃으신 우리  
원수님  
그이 마음속엔 중평만이 있었던가  
은 나라 인민들에게 안겨주실  
행복의 바다가 끝없이 물결치지  
않았던가

북변이라 추위가 제일먼저 찾아와  
제일 추운 곳이라 하지 마오  
따사로운 사랑에 사는 북변사람들  
이러오  
끝간데 없이 펼쳐진 온실바다  
언제나 봄빛이 넘쳐 봄날에만 산  
다오

그날의 원수님미소 어려서인가  
우리 원수님 돌의자에 앉으시어  
바라보신 집집의 창가들엔  
오늘도 햇빛이 눈부시어라

해빛밝은 창가가 이야기하노라  
그날 우리 원수님 돌의자에 앉으시어  
금방석에 앉힐 은 나라 인민들  
생각하시었다고  
아, 금방석과 돌의자  
오늘도 뜨겁게 안아보는 중평의  
돌의자여!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온실의 바다  
해빛에 은빛광채 눈부시더니  
밤이면 달빛이 살포이 내려앉아  
금으로 물드는 경관도 호못합니다  
땅속에서 솟았다 하늘에서 내렸나  
예전의 땅이건만 그 땅이 아닌듯

동해의 물결이 노래합니다  
우리 조국의 북변 중평땅의 온실바다  
우에 사시절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져  
땅위에 생긴 바다가 부럽습니다  
그우로 끝없이 달려가고싶어  
파도도 춤을 추며 물꽃보라를 뿌려  
줍니다

오늘은 농장의 휴식일  
《손님맞이》로 흥성이는 농장마을  
도시의 대학졸업생처녀들  
중평땅의 교원, 의사 되려고 찾아  
오는  
이들을 어이 꽃다발없이 반길수 있  
으랴

우리의 깨일은 밝다  
그들이 썩썩하게 노래부르며 오던 길로  
오늘은 도시의 꽃같은 처녀들 오누나  
사랑의 바다에 흰 갈매기처럼 날아드  
누나

보십시오

## 만복에 대한 이야기

중평의 행복한 밤  
도시도 부러워할 멋쟁이 농장마을  
온실바다 누비던 휘영청 밝은 달  
불받은 집집의 창가 기웃거리네

기쁨도 노래도 많은 집  
유난히 웃음소리 높아  
그만 창가에서 떠날줄 모르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 결혼식이 한창  
이네  
끝끝한 양묘장의 총각  
꽃같은 온실농장 처녀와 백년가약  
맺는  
행복의 날 축복이 넘치는 날  
농장사람들 모여 떠들썩

어제는 끝끝한 병사들  
고향에 제대배낭 풀어 온 농장이 들썩  
이더니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인 나라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4월이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많은 사람  
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찾아와 두봉화, 황  
목련, 백목련, 고양나무를 비  
뚝하여 갖가지 진귀한 나무

## 포전길 걸으시면 수령님을 그리며

얼마전 기자가 찾아간 곳  
은 만경대남새농장 농산  
작업반이었다. 이곳에서도  
봄철을 맞아 비뚝관세뿌리기  
가 한창인데 농장원들과 함  
께 일하는 김선비녀성의 모  
습이 보였다.

《올대갈이 실한 모를 키  
워내려면 모판 평당 씨뿌린  
량과 씨앗이 묻히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하고 낮은 온도  
와 바람피해를 받지 않게 모  
판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풍  
요한 가을은 모판에서 시작  
되거지요.》

김선비녀성이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도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방도에 대해 농장원  
들에게 설명해주고있다.

《1994년 7월말이었습니  
다. 하루는 선비어머니가  
관리위원회에 찾아와 인민  
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들을 옮겨심고있다. 이들이  
운내는 대성구역 려명동에서  
사는 김선비(73살)녀성과 그  
의 남편 송영철(75살)도 있  
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  
없는 그리움을 안고 오래전  
부터 금수산태양궁전주변 수  
목원에서 나무를 가꾸어오고  
있는 김선비녀성을 《통일신  
보》 기자가 만났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쌀로써  
우리 장군님을 더 잘 받들  
겠다고 하면서 농장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토의끝에  
남새작업반에서 일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였습니다. 하지  
만 선비어머니는 자기는 꼭  
농산작업반에서 일하겠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인민들  
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  
이시려 그토록 마음써오신  
수령님의 넉넉을 꽃피워갈  
일념을 안고 우리 농장에  
자원하여온 선비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비녀성은 농사  
일에 몸을 꼭 잡고도 걸썩게  
기자와 만난 최연숙농장원  
은 《선비어머니는 한때 우  
리 농장에 자원하여 일하였  
다.》고 하면서 년로한 몸이  
지만 지금도 농장에 자주 찾  
아오곤 한다고, 농사일에 어  
찌나 밝은지 배우는것이 많  
다고 말해주었다.

그 나날 선비녀성과 함께  
일하였던 농장원들은 그가  
행상모판의 어린 모가 열세  
라 집에서 모판을 내다가 덜  
어주던 일이며 가을철에는  
한알의 낱알이라도 허실할  
세라 실참에 열심히 벼이삭  
을 쫓던 일, 고난의 행군시  
기 풍족을 쑤어먹으면서도,  
배고프다고 조르는 자식들을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태양의 생기에 바쳐가는 순결한 마음

-대성구역 려명동에서 사는 김선비녀성의 가정-

달래다 돌아앉아 치마자락으  
로 눈금을 훑으면서도 한줌  
의 거름이라도 더 많이 포전  
에 내기 위해 아글라글 예뻐  
온데 대해 들려주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  
리움을 안고 포전에 뿌려가  
는 땀방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어깨에 실린 로고  
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수  
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  
쁨이 없다는 공민적자각을  
안고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겨온 그였다.

## 20년세월 꽃과 나무를 가꾸며

기자는 숲의 바다를 펼쳐  
고 끝없이 펼쳐지는 금수산  
태양궁전주변 수목원을 걷고  
있었다.

어느 계절이나 자기의 특  
색한 풍치가 있지만 이곳 수  
목원의 4월은 참으로 류다른  
정서를 불러일으켜주었다.  
연두빛을 띤 떨쳐입은 나무  
잎들이며 파릇파릇 돌아난  
잔디, 꽃잎들에서 풍기는 봄  
혼향이 취할듯이 코끝을 간  
지럽혔다.

하여 분배뚝으로 받은 20여  
의 많은 알곡을 그는 나라에  
애국미로 바치었다. ...  
세월은 흘러 이제는 손자  
들을 거느린 할머니가 되  
었다. 하지만 절세위인들  
을 따르는 김선비녀성의 개  
끗한 마음, 애국으로 불타  
는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  
았다.

그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  
을 꽃향기속에 모셔갈 총정  
의 마음을 안고 금수산태양  
궁전주변 수목원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어왔다.

세월을 하루와 같이 꽃과 나  
무들을 가꾸어오고있었다.  
숲속을 한동안 걸느라니  
그가 일하는 수목원포전이  
나졌다. 그곳에서 김선비  
녀성이 여러 사람들과 함  
께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있었다.

의 마음도 함께 심어주는  
그였다.  
기자는 김선비녀성과 온  
가족이 스스로 자기들의 일  
터로 간주하고있는 수목원포  
전을 돌아보았다.

1000평가량 되는 포전에는  
주목, 누운향나무, 수삼  
나무, 명자나무, 백목련,  
구슬꽃나무들과 추리나무,  
살구나무, 밤나무, 대추나  
무와 같은 과일나무들, 백  
도라지, 선인장과 같은 관  
상적효과와 약용가치가 있  
는 식물들 비롯하여 없는  
것이 없었다. 보석과도 같  
은 마음이 자양분이 되어  
서인지 활짝 피어난 꽃송  
이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  
고있었다.

무릇 농사일은 애벌김부러  
네별까지도 맨다고 하지만  
꽃과 나무를 가꾸는 일은 한  
해에 열두번도 더 김을 매야  
하는 힘든 일이다. 그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스스로 수  
십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이  
곳에서 꽃과 나무들을 가꾸  
고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존  
경이 갔다.

첫째로 나무를 심고 가  
꾸는 일은 김선비녀성에  
게 있어서 생소한것이였  
다고 한다. 애 어린 나무모  
가 죽으면 다시 심기를 그  
몇번... 땅에 묻은 씨앗들  
이 싹트지 않아 안타까와  
눈물을 흘린적도 많았다고  
한다.

그때를 회상하여 김선비녀  
성의 만말 송향춘은 이렇게  
말하였다.

《매일같이 어머니가 밤  
늦도록 과학기술서적을 읽  
군 하여 한번은 나무를 심  
고 가꾸는 일이야 경험으로  
도 되지 않다가, 밤이 깊었  
는데 쉬라고 권고한적이 있  
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경험만으로는 안된다고, 할  
일은 많은데 아는것이 적  
어 안타깝다고 하는것이였  
습니다.》

《어린 나무모들이 땅우로  
머리를 추고 수목원지구에  
푸른 숲 더욱 우거질 때 그  
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한껏 어리었다.

그는 자기가 직접 심어 가  
꾼 주목, 단풍나무, 종비나  
무를 비롯한 43종에 183만여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  
과 진귀한 화초들을 만경대  
혁명사적지와 백두산지구 혁  
명전적지, 김일성종합대학  
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  
보내주어 수림화, 원림화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가 심어 가꾼 묘목들이  
은 나라 각지에 안 간데가  
없다고 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 가꾼 묘목들을 가지고 가  
서 심고있다. 그들중에는 묘  
목들을 그냥 가지고 가기 미  
안하여 생활상  
필요한것들을 내  
어실것만 같다는 김선비녀  
성을 보며 기자는 다시금 새  
겨안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윽한  
꽃향기속에 천만년 모셔갈 순  
결한 마음, 열렬한 애민신  
으로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더 잘 받들  
어가는 김선비녀성을 보며  
기자는 다시금 새겨안았다.

한번은 들춰며  
느리다 시어머니  
에게 그것을 받  
았으면 하고 은  
근히 내비친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김선비녀  
성은 애국은 무  
엇을 바라고 하  
는것이 아니다,  
우리 수령님을  
본사기자 흥분식



김선비녀성과 그의 남편